2018년도 문화재위원회

제4차 민속문화재분과 회의록

▣ 일　시 : 2018. 7. 17.(화) 13:00

▣ 장　소 : 문화재청 대회의실

▣ 출석위원 : 박강철(위원장), 석대권, 장석하, 남해경
김두규, 홍형순, 이정수(이상 7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제척사유 고지 및 의결방식 안내

1.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였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그 밖에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회의내용은 기록·녹취되며 회의 결과는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에 따라 의결 방식은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야 하며,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의결됨을 알려드립니다.

목 차

【심의사항】		
1	논산 명재고택 안채 보수 검토	
2	제주 성읍마을 내 배수시설 정비	
3	함안 무기연당 주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4	달성 삼가헌 고택 주변 도로 건설	
5	나주 계은고택, 나주 우남고택 주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검토사항】		
6	안동 진성이씨 온혜파종택 지정 검토	
7	세종 부강리 고택 지정명칭 변경 검토	
8	제천 박용원 고택 지정명칭 변경 검토	
9	고성 왕곡마을 종합정비기본계획 조정 및 보완	
10	아산 외암마을 종합정비기본계획 조정 및 보완	
【보고사항】		
11	서천 이하복 고택 주변 축사 증축	
12	남원 몽심재고택 주변 축사 증축	
13	아산 용궁댁 주변 시전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변경	
14	남양주 궁집 주변 옹벽 설치	

심 의 사 항

안건번호 민속 2018-04-01

1. 논산 명재고택 안채 보수 검토

가. 제안사항

’18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충남 논산시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논산 명재고택」안채 보수에 대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18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충남 논산시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90호 「논산 명재고택」안채 보수 방안에 대해 검토 받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대상문화재 : 국가민속문화재 제190호 「논산 명재고택」

○ 소 재 지 : 충남 논산시 노성면 노성산성길 50 (교촌리)

○ 지 정 일 : 1984. 12. 24.

(2) 사업내용

○ 사 업 명 : 논산 명재고택 안채 보수사업

○ 사 업 비 : 110,000천원 (국비 77,000천원, 2018년 33,000천원)

○ 주요내용 : 안채 보수

- 당 초 : 안채 우측 익랑채 부분 산자이상 해체 후 기둥 드잡이

- 변 경 : 전체 해체보수

○ 사업지침 : 설계단계부터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안채를 보수한다.

○ 부의안건 : 사업내용 조정

- ‘보수정비기본계획(관계전문가 참여)’ 수립 후 보수정비 시행

라. 경과사항

○ 제3차 민속분과(‘18.6.12.) 심의결과 : 보류
(관계전문가 현장 조사를 통한 보수범위 재검토)되었던 사항임

※정밀안전진단 (2016. 8.) : E등급

마. 현지자문의견(2018.7.10./ 문화재위원 ○○○, 문화재위원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고택이 배면쪽으로 기울고 있으며, 배면 배수 불량으로 기단 및 목부재에 영향을 끼치고 있어 해체보수의 필요성은 있음.
- 다만 부분보수할 경우 지붕하중 등으로 뒤틀림 등이 가중될 여지가 있으므로 지형분석을 통한 배수체계 개선 및 해체보수 범위 등을 위한 '보수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그 결과에 따라 명재고택 안채 보수정비를 함이 좋겠음.

바. 검토 의견(근대문화재과)

○ 현장조사 의견과 같이 정비 범위 및 방법, 공법 결정 등을 위한 '보수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이에 따른 보수정비를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사. 의결사항

○ 원안가결

안건번호 민속 2018-04-02

2. 제주 성읍마을 내 배수시설 정비

가. 제안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88호 「제주 성읍마을」 내 배수로를 정비하고자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민속문화재 제188호 제주 성읍마을 내 배수로 정비가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서귀포시표선면장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88호「제주 성읍마을」

○ 소 재 지 :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3) 신청위치 :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1509-2 등

(4) 신청내용 : 우수관 및 집수정 설치

○ 총연장 : 188.5m

- 굴착폭 : 2.5m, 깊이 : 1.5m

○ 우수관 규격 : D700mm, L=188.5m

○ 집수정 : 4개소(1200 × 1200 × 1200)

라. 검토의견

○ 제주 성읍마을 내 도로에 우수관을 교체하고, 집수정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문화재 지정구역 내 당해문화재로부터 가급적 이격거리를 확보하여 문화재 보존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할 것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집수정의 높이를 마당보다 낮게 구획

안건번호 민속 2018-04-03

3. 함안 무기연당 주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가. 제안사항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면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208호「함안 무기연당」주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함안 무기연당 주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의 제3구역(이격거리 490m)에 해당하여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3구역 : 함안군 도시계획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208호「함안 무기연당」

○ 소 재 지 : 경남 함안군 칠원면 무기1길 33 (무기리)

(3) 신청위치 : 경남 함안군 칠원읍 경남대로 1760(무기리 933-2)

(4) 신청내용 :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 높이 : 4.763m(※기존 빌라 높이 : 8.85m)

○ 모듈면적 : 99.82㎡(가로 11.102m × 세로 8.992m)

- 모듈54장(개별규격 가로 992mm × 세로 1,964mm × 두께 35mm)

라. 현지조사의견(문화재위원 ○○○/ 2018.7.10)

○ 함안 무기연당에서 490m 이격된 기존빌라 옥상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임

○ 위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은 문화재인 함안 무기연당과 490m 이격된 거리에 위치해 있고 기존의 주거지역 안에 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하천과 도로가 있고 대형 공업지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대형 건물이 사이에 건축되어 있어 전혀 보이지 않아 문화재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안건번호 민속 2018-04-04

4. 달성 삼가헌 고택 주변 도로 건설

가. 제안사항

대구시 달성군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04호「달성 삼가헌 고택」주변 도로 개설을 위해 현상변경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달성 삼가헌 고택 주변 도로 개설을 위한 현상변경 신청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2, 3, 4, 5구역(2구역/이격거리 약 79m)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한 사항임

○ 동 안건은 2018년 4월 문화재위원회에 심의되었으나, '환경영향평가 서류 등 보완후 재심의'하는 것으로 보류되었음

※ 2구역 : 평지붕 신축불가, 경사지붕 신축불가
3구역 : 평지붕 신축불가, 경사지붕 6m(1층)이하
4구역 : 평지붕 8m(2층)이하, 경사지붕 11m(2층)이하
5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률에 따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대구광역시장 건설본부장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04호「달성 삼가헌 고택」

○ 소 재 지 : 대구시 달성군 하빈면 묘리 792

(3) 신청위치 : 대구시 달성군 하빈면 묘리 817-8번지 일원

(4) 신청내용 : 도로 개설

○ 연장 : 745m(※총연장 : 9.60Km)

※ 기존지방도(남북방향) 67호선과 연결로 4개소 신설

○ 폭원 : 4차로(B=17.5m), 설계속도 : 본선80Km/hr

○ 토공 : 흙쌓기: 3.8만㎥/ 흙깍기: 18.4만㎥/ 순성토: 12.7만㎥

○ 지하차도 : 1개소(L=21m)

○ 진출입시설 1개소(입체교차)

라. 현지조사 의견(전 문화재위원 ○○○ / 2018.3.23)

○ 달성 삼가헌 고택에서 79m 이격된 기존 2차선(동서방향)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고, 기존 국지도(남북방향 67호선)과 연결하는 사항임

○ 신청지와 문화재사이 남쪽으로 낮은 야산이 있어 바로 조망되지 않으나, 문화재에서 남동쪽으로 조망되는 도로변과 어귀의 회전 광장에 경관 및 차폐 식재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마. 검토의견

○ 환경영향평가보고서 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함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수목차폐는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보완
- 방음벽 설치로 인한 문화재와의 조망여부 확인 후 허가

안건번호 민속 2018-04-05

5. 나주 계은고택, 나주 우남고택 주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가. 제안사항

전라남도 나주시 다도면 소재 국가민속문화제 제151호 「나주 계은고택」 및 제165호 「나주 우남고택」 주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민속문화제 제151호 나주 계은고택 및 제165호 나주 우남고택 주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의 제2구역(이격거리 450m)에 해당하여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동일 신청지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안건은 2018년 6월 문화재위원회에 심의되었으나, '역사문화경관을 저해'하는 것으로 부결되었고, 사업규모를 축소하여 재신청하였음

※ 2구역 : 평슬라브 개별심의, 경사지붕 7.5m 이하(한옥형태에 한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51호「나주 계은고택」제165호 「나주 우남고택」

○ 소 재 지 : 전남 나주시 다도면 풍산리 18-1, 풍산리 40-1

(3) 신청위치 : 전라남도 나주시 다도면 송학리 산153-8번지

(4) 신청내용 :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 면적 : 6,148㎡, 최고높이 : 1,217mm

○ 모듈규격(1,960mm×991mm)

※ 변경사항 : 면적축소 13,952㎡→6,148㎡(55.9% 감소)

※ 기존 신청내용(2018년 6월 심의)

○ 면적 : 13,952.0㎡, 최고높이 : 1,217mm

○ 모듈규격(1,960mm×991mm)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ㅇㅇㅇ / 2018. 5. 15.)

○ 나주 계은고택에서 450m이격된 임야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하는 사항임

○ 신청지와 문화재 사이에는 낮은 임야가 있어 문화재에서 조망되지 않으나 도래마을로 진입하는 도로에서 조망될 우려가 있어 진입경관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함

마. 검토의견

○ 사업 규모를 축소하여 신청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회 검토가 필요함

바.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검 토 사 항

안건번호 민속 2018-04-06

6. 안동 진성이씨 온혜파 종택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경북 안동시 도산면 소재 「안동 진성이씨 온혜파 종택」 국가지정 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 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소재 경상북도 민속문화재 제60호「퇴계 퇴실」을 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로 승격 지정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경상북도지사

(2) 대상문화재 : 안동 진성이씨 온혜파 종택(安東 眞城李氏 溫惠派宗宅)

○ 소재지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온혜중마길 46-5(온혜리 604)

○ 소유자 : 진주이씨 노송정종중

○ 수량 : 일곽(건물 4동, 토지 3,715.5㎡<5필지>)

- 건축물 지정 : 4동, 614.9㎡

명 칭		시 대	구조/형식/형태	크기/수량	소유자
안동 진성이씨 온혜파 종택	본채	조선시대	목조, 5량, 정면7칸, 측면6칸, ㅁ자형	351.8㎡	진주이씨 노송정 종중
	사랑채	조선시대	목조, 5량, 정면4칸, 측면3칸, ㄱ자형	123㎡	
	대문채	조선시대	목조, 3량, 정면6칸, 측면1칸, 一자형	84.1㎡	
	사당	조선시대	목조, 3량, 정면3칸, 측면1.5칸, 一자형	56㎡	
계				614.9㎡	

- 토지 지정 면적 : 5필지, 3,715.5㎡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지정(㎡)	소유자
안동시 도산면 온혜리	597-1	전	446	280	이창건
안동시 도산면 온혜리	603	전	403	403	진성이씨 노송정종중
안동시 도산면 온혜리	604	대	1,888	1,888	진성이씨 노송정종중
안동시 도산면 온혜리	605	대	661	661	이범교
안동시 도산면 온혜리	219	산	151,496	483.5	진성이씨 노송정종중
계			154,048	3,715.5	

라. 지정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 ○ 문화재위원〉 : 지정가치 있음

○ 진성이씨 온혜파 종택은 한 가문의 역사적인 변천과 향촌사화의 변화상을 규명해 볼 수 있는 역사문화적인 자료가 전승되는 공간으로 국가민속문화재 지정 요건에 필요한 역사성, 학술성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 ○ ○ 문화재위원〉 : 지정가치 있음

○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0)의 조부인 노송정(老松亭) 이계양(李繼陽, 1424~1488)이 건립하였다고 전하는 안동 진성이씨 온혜파 종택은 그간의 내력이 퇴계가 쓴『사적事蹟』[1], 송계(松溪) 신용개(申用漑, 1463~1519)가 지은 이계양의 묘갈명에 잘 기록되어있다. 그리고 건립 이후 약 130년 후인 1588년 이종도(李宗道, 1535~1602)가 가묘(사당)를 개수한 후에 지은 상량문과 1928년 종택을 수리하기 위해 돈을 모은 후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종택수리소가 남아있어 건립에서 근래까지 건축에 대한 기록이 잘 보존되고 있다. 이는 주거건축물이 역사인문환경에 따라 변화되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퇴계선생이 출생한 태실과 조선중기 반가에서 건립된 제청이 보존되고 있어 주거환경 변화에 따른 건축의 변화양상도 잘 간직하고 있다. 또한 현재도 종손이 거주하면서 관리와 민속적 가치 보존에 힘쓰고 있어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 보존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 ○ ○ 문화재전문위원〉 : 지정가치 있음

○ 본채, 별당, 가묘 등의 건축물들을 통해 소위 종택에 내재되어 있는 유교적 질서체계를 살펴볼 수 있고 또한 종택을 이루고 있는 각 영역(안채, 사랑채 등)들의 공간구성 및 배치형식 등이 경북 안동지역 일대의 상류주택에서 보이는 보편적 특징(건축적 규범) 등을 비교적 잘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퇴계태실은 종택의 역사적 가치를 더 한다고 할 수 있겠다. 다만, 1985년 온혜파종택(당시 퇴계태실)의 시・도지정문화재(경상북도 민속자료) 지정 당시 조사의견서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종택의 본채(안채, 사랑채, 태실)가 증・개축되는 과정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국가민속문화재로의 승격, 지정이 타당한 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1) 선성지, 온계(溫溪) 사적(事蹟), 유교넷

마. 참고사항(안동시 의견)

○ 안동 진성이씨 온혜파 종택은 조선시대 사대부 집안의 고택으로 역사적, 인물적, 학술적, 민속적 가치를 고루 갖추고 있으며, 특히 퇴계이황이 태어난 태실은 유사한 예를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평면을 가진 건축물로서 가치가 확고한 문화유산이므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신청합니다.

바. 검토의견

○ 문화재위원회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지정명칭은 “안동 진성이씨 온혜파 종택(安東 眞城李氏 溫惠派宗宅)”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영문표기 : Head House of Onhye Branch of Jinseong Lee Clan, Andong (Andong JinseongLeessi Onhyepa Jongtaek)

사. 의결사항

○ 원안가결

〈붙임 〉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 보고서

안동 진성이씨 온혜파 종택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자 : ○○○ 문화재위원

- **신청종별** : 국가민속문화재
- **소 유 자** : 진성이씨노송정종중(경북 안동시 도산면 온혜중마길 46-5)
- **신 청 인** : ○○○(○○○, 1946 - , 온혜파 종택 종손)

1. 온혜 입향과 종택 건립

1) 온혜 입향과 종가 사람들

진성이씨(眞城李氏)가 처음 터를 잡은 곳은 현재 청송군 진보면 지역이다. 시조 이석(李碩)은 진보현리(眞寶縣吏)였으나, 고려 충렬왕 때 생원시에 합격하였다. 그의 장남 이자수(李子脩)가 충숙왕 때 문과에 급제하였고, 공민왕 때 홍건적의 난을 평정하여 안사공신(安社功臣에 책록되고, 송안군(松安君)으로 봉해졌다고 한다. 시조 이석 윗대 조상은 대대로 진보지역의 향리직을 지냈고, 이석부터 중앙정계에 진출하면서 가문을 일으키게 된다. 그 뒤 후손들은 이석을 시조로 하고 본관을 진성(眞成)으로 하였는데, 진보(眞寶)라고도 한다.

시조의 장남인 자수가 기곡(岐谷, 청송군 파천면 신기리)에서 마리촌(안동시 풍산읍 마애리)으로 이주하였다. 그 뒤 와룡면 주하리에 터를 잡는데, 영가지(永嘉誌, 1602) 등을 보면 이 마을에 실질적으로 정착 시기는 자수의 맏아들 운후(云候)와 손자 정(禎)의 시대인 것으로 보인다.

4세 이정은 1431년(세종 13) 평안도 영변 판관으로 재직 때 오랑캐의 침공을 막기 위해 영변진(寧邊鎭) 설치와 양산성 증축을 관리ㆍ감독하여 완성하였다. 최윤덕을 도와 여진족을 정벌하는데 공를 세워 원종훈(原從勳) 2등에 책록되었다.

이정은 계유정난(癸酉靖亂)에 가담하여 세조가 즉위하자 좌익원정공신(3등)이 되었고, 중앙의 관료로 입신하게 된다. 이를 계기로 가문의 격이 올라가고, 전답, 노비 등이 급증하여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기도 한다. 그는 우양(遇陽)ㆍ흥양(興陽)ㆍ계양(繼陽) 3남을 두었는데, 3남 계양(繼陽, 1424-1488))이 온혜리로 이거하게 된다.

5세 이계양(李繼陽, 1424~1488)은 온혜리 입향조로 선산부사를 지낸 정(禎)의 아들이며 안동 와룡면 주하리에서 태어났다. 생육신의 한 분인 어계 조례와 동방(同房) 급제하여 성균관에 들었고 봉화현 훈도직에 있다가 단종(端宗)이 왕위를 선위하자 용두산

(龍頭山) 아래 국망봉(國望峯) 동쪽으로 터를 잡아 은거하면서 항상 국휘일(國諱日)인 10월 24일에 국망봉(國望峯)에 올라 영월(寧越)을 마라보면서 곡하며 손수 쌓은 단에다 절하였다 한다. 문밖에다 만년송(萬年松) 한그루를 심고서 자신의 호를 노송정(老松亭)이라 했다.

6세 이식(李埴, 1463-1502)은 이계양의 장남으로 1501년(연산군 7) 사마시에 합격하였고, 진사(進仕)를 지냈다. 이식은 아들 6형제를 두었고, 그 후손이 번성하여 많은 학자를 배출함에 따라 분파가 된다. 이식의 첫 번째 부인 문소 김씨 사이에 난 아들 잠(潛)과 하(河, 1482-1544)는 온혜종파로 분파하였다. 재취 춘천박씨 사이에 난 의(漪)는 예천 대죽으로 이거하여 대죽파, 가선대부 예조 참판 해(瀣, 1496-1550)는 문과에 급제하여 대사헌 등을 역임하였으며, 그 후손은 온계파로 분파하였다. 산야정 징(澄, 1498-1582)은 제언 찰방을 지냈으며, 그 후손은 산야정파로, 퇴계 황(滉, 1501-1570)은 상계파로 분파하여 크게 명망을 떨치며 영남의 명문가로 그 자리를 확고히 하였다.

입향조 계양의 손자이자 식의 4남인 이해(李瀣, 1496-1550)는 6세 때 부친이 세상을 떠나자 숙부인 송재 이우(李堣)의 훈도 아래 성장했다. 22세 때는 경상감사로 부임하는 당대의 대학자 모재(慕齋) 김안국(金安國)이 송재의 집을 방문해 두 형제를 보고는, "죽은 이 아무개(온계 형제의 부친)는 이런 형제를 두었으니 헛되게 죽지 않았다"고 칭찬한 뒤 책과 양식을 내려주었을 정도였다. 30세에 진사시에 합격했고 1528년(중종 23)인 33세 때 문과에 하여 승문원 권지정자를 시작으로, 여러 관직을 두루 역임했다. 그는 황해도 관찰사, 한성부 우윤, 충청도 관찰사 등을 지냈다.

인조 때 대사헌으로 재임 중 권신인 우의정 이기(李芑)를 탄핵하여 파면케 하였다. 1545년 명종 즉위로 소윤이 득세하하자 이기의 심복인 이무강(李無彊)의 탄핵으로 갑산을 귀양 가던 도중 양주에서 병사하였다.

이식의 5남인 이징(李澄, 1498-1582)은 대과(大科)에 응시하기 위해 상경하였다가 김안로(金安老)가 전형(銓衡)을 주관함을 알고 과거를 포기고 낙향하여 학문에 전념하였다. 뒷날 유일(遺逸)로 천거되어 참봉으로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고, 1543년(중종 38) 제원도 찰방 제수되어 부임했으나, 감사(監司)와 뜻이 맞지 않아 낙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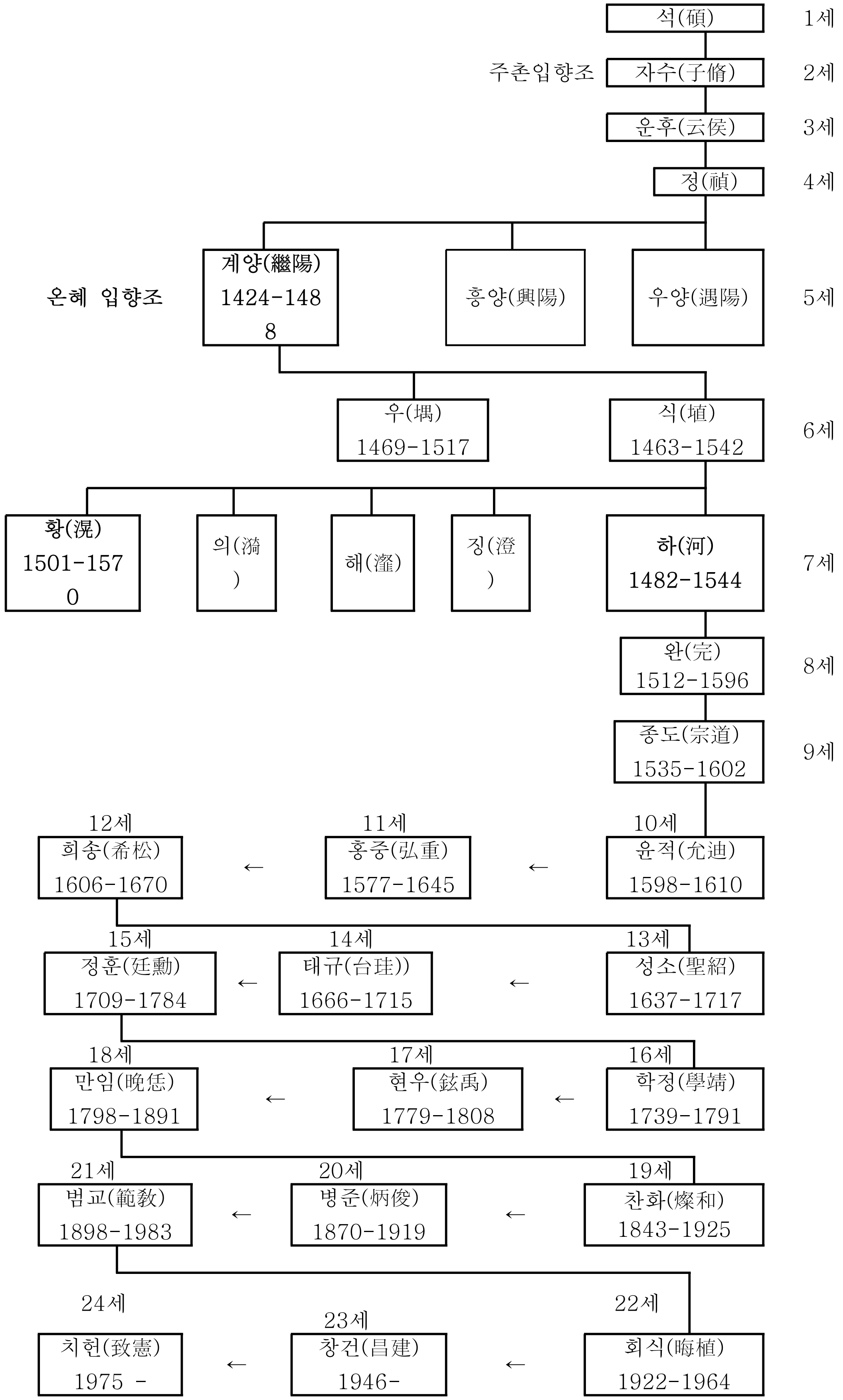
입향조 계양의 손자로 이식의 막내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퇴계 이황(李滉, 1501-1570)이다, 그는 노송정 종택에서 태어났고, 6개월만에 부친을 잃었기 때문에 모친과 숙부 우(堣)에게 양육되었다. 1528년(중종 3)에 진사에 합격하고, 1534년(중종 29) 문과에 급제하였다. 대사성(大司成)ㆍ예조판서(禮曹判書)ㆍ양관(兩館)ㆍ대제학(大提學) 등을 지내고 은퇴하여 낙향하였다. 주자학을 집대성한 대유학자로 영남학파의 영수였다. 만년에 도산서원을 세워 후진양성과 학문연구에 전심하여 심오한 학문적 업적을 이룸으로써 후인의 추앙을 받은 대학자로서 큰 족적을 남겼다. 호는 퇴계(退溪)이고, 시호는 문순(文純)이다. 문묘에 배향되고, 도산성원을 비롯한 전국의 수 십개 서원에 제향되었다. 그는 『퇴계집(退溪集)』, 『성학십도(聖學十圖)』, 『주자서절요(朱子書節要)』, 『자성록(自省錄)』, 『계몽전의(啓蒙傳疑)』, 『심경후론(心經後論)』, 『할인심방(活人心方)』,

『예안향약(禮安鄕約』 등 수많은 학문적인 업적을 남겼다.

8세 이완(李完, 1512-1596)은 1540년 사마시에 합격하였으나, 출사하지 않고, 학문에 힘써고, 가업을 이었다. 1556년(명종 11)에 영천(永川) 교관(敎官)이 되었으면, 만년에 작은 정자를 지여 '요산(樂山)'이라 편액하였는데, 퇴계가 손수 써 준 것이다. 퇴계(退溪) 사후(死後) 동문제현들과 퇴계의 성학십도((聖學)十圖)를 강론 하고, 간행ㆍ배포하였으며, 송나산(松蘿山)에서 계를 맺어 진솔회(眞率會)로 삼았다.

9세 이종도(李宗道, 1535-1602)는 종조부 이황의 문인으로 1579년 사마시에 합격하였고, 임진왜란에 의병부장으로 16세의 손자 홍중(弘重, 1577-1645)과 함께 예안에서 의병을 일으킨 의병장 김해(金垓, 1555-1593) 휘하에서 활약하였다.

11세 이홍중(李弘重, 1577-1645)은 16세 나이로 조부 이종도(李宗道)를 따라 김해(金垓의 의병진에서 활동하였다. 광해군대에는 특별 선발되어 서울 한강에 이르렀을 때 이이첨(李爾瞻, 1560 - 1623)의 탐욕과 그에 부합하는 추종자들을 목격하고 바로 고향으로 내려 왔다. 이후 과거시험을 그만두고 경전을 연구하였다.


석(碩) 1세
주촌입향조
자수(子脩) 2세
운후(云侯) 3세
정(禎) 4세
온혜 입향조
계양(繼陽) 1424-1488
흥양(興陽)
우양(遇陽) 5세
우(堣) 1469-1517
식(埴) 1463-1542 6세
황(滉) 1501-1570
의(漪)
해(瀣)
징(澄)
하(河) 1482-1544 7세
완(完) 1512-1596 8세
종도(宗道) 1535-1602 9세
10세 윤적(允迪) 1598-1610
11세 홍중(弘重) 1577-1645
12세 희송(希松) 1606-1670
13세 성소(聖紹) 1637-1717
14세 태규(台珪)) 1666-1715
15세 정훈(廷勳) 1709-1784
16세 학정(學靖) 1739-1791
17세 현우(鉉禹) 1779-1808
18세 만임(晩恁) 1798-1891
19세 찬화(燦和) 1843-1925
20세 병준(炳俊) 1870-1919
21세 범교(範敎) 1898-1983
22세 회식(晦植) 1922-1964
23세 창건(昌建) 1946-
24세 치헌(致憲) 1975 -

2. 종택의 건립

진성이씨 온혜파 종택은 안동시 도산면 온혜중마길 46-5(온혜리 604)에 자리하고 있다. 온혜리는 진성이씨 4세 정(禎)의 3남 계양(繼陽, 1424-1488)이 분가하면서 처음 입향한 곳이다.

퇴계 선생이 엮은 『온계전거사적(溫溪奠居事蹟)』에 의하면 이계양은 처음 예안현 동쪽 부라촌(浮羅村, 지금은 예안면 부포)에 살았는데 훈도가 되어 봉화로 가는 길에 온계를 지나게 되었다. 공이 이곳 산수(山水)의 아름다움에 취해 이리저리 거닐다가 신라현(新羅峴) 고개에 이르러 잠깐 쉬었는데 어떤 스님이 온계로부터 오다가 함께 쉬면서 대화가 온계의 풍수(風水)에 이르게 되었다. 공은 서로 본 것이 부합됨을 기뻐하여서 드디어 스님과 손잡고 다시 온계로 돌아오니, 그 스님은 위 아래로 오가며 두루 살피다가 현재의 종택 자리를 선정해주었다고 한다.

스님의 말에 따르면 "이곳에 집을 짓고 살면서 반드시 귀한 아들을 얻으리라"고 하여 공이 그 말을 따랐다고 한다. 그 때에는 온계의 시냇가에는 한 집만이 살고 있었는데 둘레에 묵은 땅이 많아 농사지을 농토가 넉넉했고 물을 끌어 논을 만들 수 있었으며, 나무숲이 울창하고 깊은 골짜기가 있어 항상 맑은 냇물이 흘러 물고기도 많았다고 한다. 공이 이곳에다 세거지를 마련하고 은거한 후 두 아들을 낳으니 독실한 지행(志行)에 한 생애를 학문에 참작한 진사 식(埴)과 시문에 뛰어난 송재공(松齋公) 우(堣)이다. 특히 진사 식의 6남 1녀 중 막내인 퇴계를 배출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영남의 명문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온계전거사적(溫溪奠居事蹟)』·신용개(申用漑, 1463-1519)의 이계양의 묘갈명 등 집안에 전하는 여러 자료를 보면, 종택을 건립한 시기는 계양(繼陽, 1424-1488)이 이곳에 이거하여 1454(단종 2)년경에 건립하였고, 여러 차례 중수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집은 퇴계 이황이 태어난 태실(胎室)이 있다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퇴계선생 탄생에 관한 일화가 다음과 같이 전해오고 있다. 퇴계선생의 어머니인 춘천박씨(1470~1537)는 공자가 집 대문을 열고 들어오는 꿈을 꾸고 퇴계를 낳았다고 전해진다. 성림문중수기(聖臨門重修記)에 "연산 7년, 신유년(1501) 11월 기해일, 진시에 퇴계선생이 온계리 집에서 출생하셨다. 그 하루 전날 선생의 모친이신 정경부인 춘천박씨께서 공자가 문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었으니, 참으로 좋은 꿈이었다."는 내용의 기문이 있다.

아버지 식은 진사에 합격한 해에 퇴계를 두었으나, 서당을 지어 교육을 해 보려던 뜻을 펴지 못한 채, 퇴계가 난 지 7개월 만인 이듬해 6월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퇴계의 어머니는 전처에서 난 자녀와 친생자를 차별 않고 부도(婦道)를 지키면서 자애로이 길렀다.

퇴계가 "나에게 있어 영향을 가장 많이 준분은 어머니"라 할 만큼 어머니는 "고부의 자식은 몇 백배 더 조신해야 한다."는 엄한 가법(家法)을 세워 자녀를 교육하였고, 농사와 양잠으로 생계를 꾸려가며 가정을 일으켰다.

퇴계는 이렇듯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고 불행하게 어머니의 슬하에서 자라면서 전해 들은 아버지의 못다 이룬 교육에 대한 꿈을 가슴에 새겼고, 그의 천성이 남다르다고 "출신하여 벼슬길에 나가더라도 현감 한 고을만 하라."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꼭 지키리라는 신조를 가지고 처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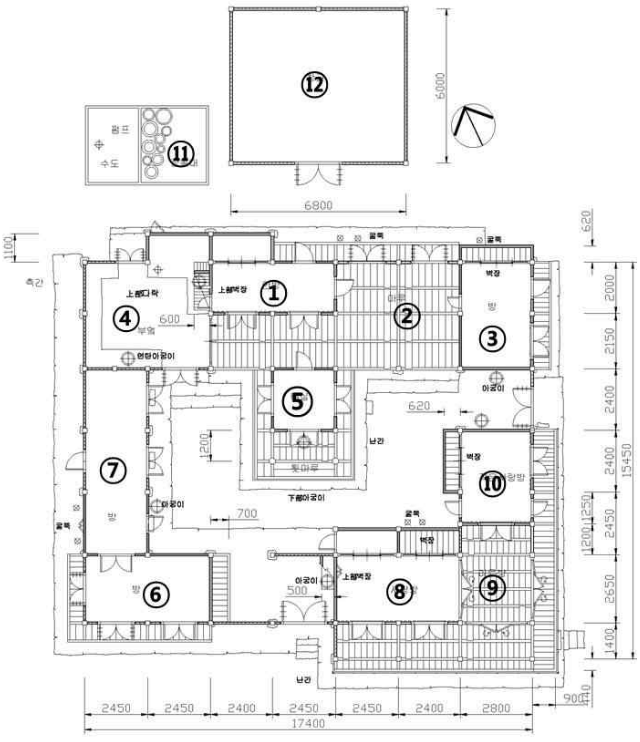
퇴계의 가문 진성이씨(眞城李氏)에는 선대부터 학문을 쌓아 덕을 기르고 입신양명하되, 소나무의 굳은 절개를 본받아 대의와 명분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가교(家敎)가 있었다.

진보(청송군 진보면) 현리(縣吏)였던 시조 이석(李碩)은 예의와 공덕이 커서 생원시에 급제하였고, 2대 자수(子修)는 안동시 풍산면 마애로 이거 하였고,홍건적을 친 충훈으로 공신에 올라 송안군(松安君)에 봉해졌다. 와룡면 주하리[周村]로 다시 이거한 3대 운후(云侯)는 중훈대부(中訓大夫)가 되고, 부인 권씨는 가법으로 "입신양명하여 조상을 빛내어 효도할 것"을 가르쳤다. 4대인 퇴계의 증조부 정(禎)은 영변성을 쌓고 변방을 지켜 공신〔원종훈(原從勳)〕이 되었으며, 노송(老松 : 뚝향나무)을 옮겨 심어 대대로 솔의 절개를 본받도록 가르쳤다.

퇴계의 조부 계양(繼陽, 1424-1488)은 도산면 온혜에 입향하여 주하리 큰집의 노송을 분식(分埴)해 솔의 고절(固節)을 술상하면서 용두산 용수사(龍頭山 龍壽寺)를 가숙(家塾)으로 삼고 가학(家學)을 일으켰다. 퇴계의 조부 계양(繼陽)이 진사에 급제하였고 아들 형제의 입신출세를 위하여 갖은 정성을 기울여 가정교육을 하였다. 그 결과 퇴계의 아버지도 진사가 되었고, 숙부 우〔堣, 호 · 송재(松齋)〕는 최초로 문과에 급제하고 감사와 참판 벼슬을 하였다.

송재공은 부친의 가학을 이어 조카와 사위를 청량산(淸凉山)과 근처 절간으로 보내어 여러 대를 이어 온 가교(家敎)를 계승하였다. 특히, 퇴계는 아버지가 온혜 윗마을에 심어 가꾼 송림(松林)을 보면서 절개를 가꾸었고, 부친의 유지(遺志)인 교육 사업과 어머니로부터 받은 엄한 규율을 몸에 익히고 뜻을 세우면서 성장하였다. 훌륭한 자손을 얻기 위한 조상 누대의 공들인 음덕과 그 조상의 뜻을 한평생 받들어 노력한 결과, 퇴계가 있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종택은 ㅁ자형으로 7칸 측면 6칸이며, 중앙에 퇴계태실이 있다. 몸채 동쪽으로는 ㄱ자형으로 해서 세워진 노송정이 있고, 사당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다. 종택의 평면상의 각방의 명칭 용도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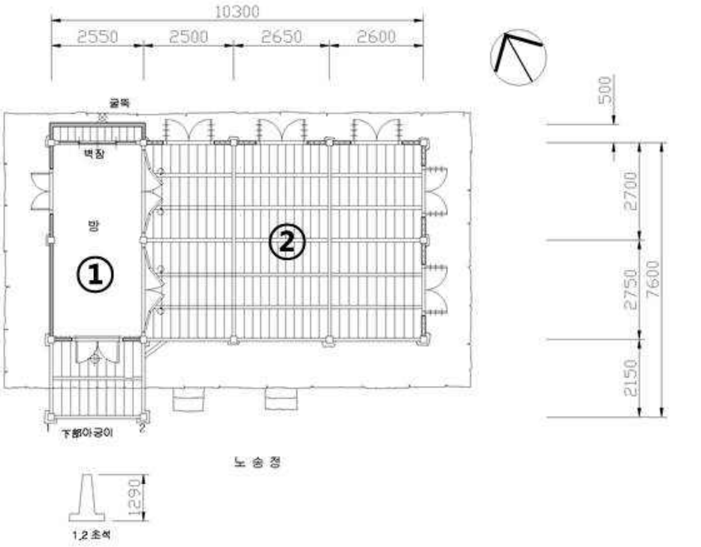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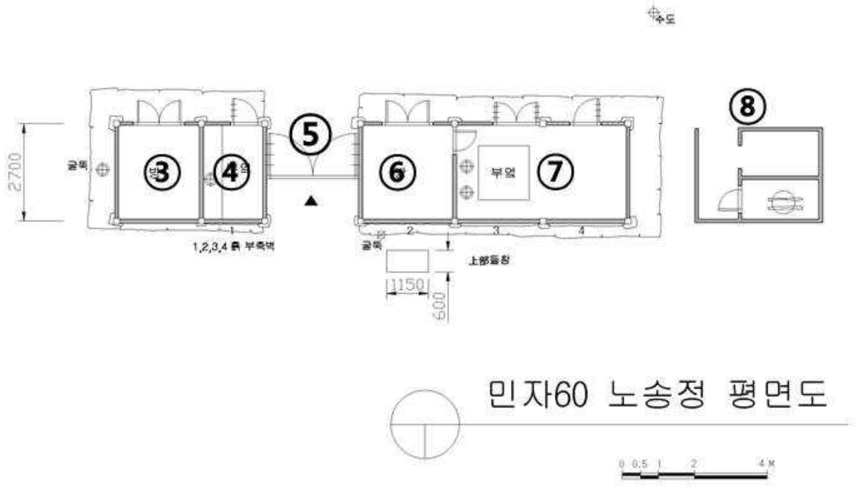
민자60 퇴계태실 평면도

① 안방 : 현 종부가 시집왔을 당시 시어머니가 머물던 곳이다.
② 안대청 : 기제사를 지내는 곳이다.
③ 상방 : 현 종부가 시집온 후 머물던 곳이다.
④ 예전에 사용하던 부엌이다.
⑤ 태실 : 퇴계이황이 태난 방. 종부가 시집에 처음 와 현구례를 준비하기 전, 현구례 후 3일간 머물던 곳. 평소에는 비어있는 곳이다.

⑥ 서상방 : 오른쪽 한 칸은 방이고 왼쪽 한 칸은 마루로 되어 있으며 할머니가 머물던 곳이다.

⑦ 고방 : 10년전 쯤 개조하여 현재는 부엌으로 사용 중이다. 원래는 아래 한칸은 방, 위 두칸은 고방이 였다. 고방에는 찧어 놓은 쌀 등 곡식을 보관하였다.
⑧ 사랑방 :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시고는 비어 있던 공간이다. 손님들이 오시면 머물렀다.
⑨ 마루방 : 손님을 맞이하는 곳이다.
⑩ 작은사랑 : 현 종손이 할아버지께서 살아 계실 때 머물던 곳이다.
⑪ 장독대 : 원래 그 위에 있던 장독대를 최근에 보수하였다.
⑫ 창고 : 10년전쯤 고방을 부엌으로 개조하고 그 고방에 보관하던 물건을 넣어둘 창고를 만들었다.





① 제일 큰 어른이 머물던 곳. 할아버지께서 살아 계실 때 머무시다가 돌아가신 후 현 종손이 머물는 곳이다.
② 대청 : 불천위제사를 모시는 곳이다.
③ 고방 : 나락, 보리 등 곡식을 보관하던 곳이다.
④ 마구 : 말이 있던 마구이다.
⑤ 성임문.
⑥ 방 : 집안의 일 봐주시던 분이 머물던 방이다.
⑦ 왼쪽 한칸은 부엌이고 오른 한칸은 외양간으로 소가 있던 곳이다.
⑧ 최근에 지은 화장실이다.

3. 제례의 전승

진성이씨 온혜파 종택에서는 입향조 이계양의 불천위를 비롯하여 4대봉사하고 있다. 불천위 제사는 고위와 비위 두 분이며, 그 외 고조고비위, 증조고비, 조고비위, 고비위으로 기제사만 모두 10번이다.

명절의 차사는 설날과 추석 차례가 있다. 설날이 되면 세배를 드리고, 오전 11시경에 종택 사당에서 차례를 지낸다. 지파의 후손들은 각자 차례를 지내고 마지막으로 종가에 모여 제사를 지내는데, 설날 차례는 약식 차례이기 때문에 제수도 간단하고 절차도 간단하며 무축단헌(無祝單獻)으로 지낸다.

추석 차례는 햇곡이 나지 않으면 추석 대신 중구절(9월 9일)에 제사를 지내기도 했다. 그리고 현 종손 이창건(李昌建, 1946-)의 조부 이범교(李範敎, 1898-1983)가 계실 때만 해도 음력 6월 15일이면, 유두천신(流頭薦新)으로 종가의 사당에 햇과일과 햇밀로 만든 국수를 올리고 무축단헌으로 조상에게 제사를 올렸다. 또 유두에 햇과일 나지 않으면 칠석 차사를 올리기도 하였다고 한다.

10월에는 조상의 묘소에 가서 묘사를 지낸다. 묘제는 10월 초정일(初定日)이고, 묘소의 위치에 따라 제사별로 유사가 정해져 있어서 이들이 묘소로 관리하고, 제수도 준비하여 행사한다.

이계양의 불천위 제수는 도산서원에서 준비하여 온다. 종택에서는 면과 편, 탕과 소채류 그리고 메와 갱을 준비한다. 도산서원의 유사들이 제수와 물목단자를 가지고 오면, 종손이 입회하여 물목을 점검하고 봉심한다. 이어서 근봉한 제수를 풀어 어물과 육류를 적틀에 괸다. 이때 '혈식군자(血食君子)'라 하여 날고기를 그대로 괴어서 사용한다. 이렇게 다른 문중과 달리 도산서원에 준비하는 것은 퇴계 이황의 조부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제사에는 유밀과를 시용하지 않는다.

4. 고문서

진성이씨 온혜파 종택의 고문서는 2014년 1월에 모두 안동국학진흥원에 기탁하였다. 기탁한 자료는 현판 4점, 3월에 목판 7점과 현판 2점, 2015년 4월 23일에 고서 434종 842책·고문서 1,298점·서화류 17점·기타 3점 총 2,160점 등 고서·고문서·목판·기타류 총 2,173점이다. 이 기탁자료 중 고서와 고문서의 분류 현황을 보면, 고서 434종 842책을 사부四部로 분류하면, 경부經部 43종 102책·사부史部 95종 184책·자부子部 25종 67 책·집부 集部 271종 489책이다. 이들 고서는 노송정 이계양과 그 후손을 포함한 사림들의 문집으로 이루어진 1800년대 중후반 이후에 간행된 집부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물의 실기와 연보 서적으로 구성된 사부, 경부, 자부 순이다.

이를 판종별로 보면, 경부는 목판본 22종ㆍ필사본 20종ㆍ석인본 1종, 사부는 석인본 40종ㆍ목판본 21종ㆍ필사본 14종ㆍ신연활자본 13종ㆍ목활자본 6종ㆍ영인본 1종, 자부는 목판본 12종ㆍ필사본 10종ㆍ석인본 2종ㆍ신연활자본 1종, 집부는 석인본 146종ㆍ필사본 61종ㆍ목활자본 10종ㆍ신연활자본 11종ㆍ영인본 7종으로, 석인본 189종ㆍ필사본

105종 · 목판본 91종 · 신연활자본 25종 · 목활자본 16종 · 영인본 8종 순으로 분류된다.

고문서는 1463년 서실입안(鬩失立案 명현의 간찰을 배접해 놓은 귀중첩 등 모두 26종 1,298점이다. 이중에는 간찰이 502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제문 283점, 시문 98점, 성책 74점, 좌목 60점, 만사 55점, 행장 42점 등이다.

고서는 석인본으로 간행한 개인문집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고문서는 노송정 이계양 후손들의 수신 · 간찰과 제문 · 시문 등으로 구성된 것이다. 시기는 주로 1800년대 중 · 후반 이후로 추정되지만 『가선고적(家先古蹟)』 · 『선조양세유묵(先祖兩世遺墨)』 · 『제현유적(諸賢遺蹟』 · 『선현묵첩(先賢墨帖)』 등 4종의 첩은 1400년부터 1700년대에 이르기까지 작성 시기가 비교적 이르며, 작성자 또한 영남의 유명한 명현들로 이루어져 있다.

『가선고적(家先古蹟)』은 1468년 이정(李禎)의 배(配) 안동김씨 서실입안(鬩失立案) 소지를 포함하여 1510년 노송정 배 영양김씨 · 1529년 퇴계모 춘천박씨 · 1559년 이완(李完) · 1579년 이완 · 1580년 이완부부가 작성한 5종의 분재기 등이 들어 있다.

『선조양세유묵(先祖兩世遺墨)』은 기암 이완의 1540년 경자 식년시(式年試) 진사(進士) 시권(試劵)을 재단한 것과 1588년 이종도(李宗道)가 지은 가묘개창상량문(家廟改創上樑文) 총 2종의 문서를 첩의 형태로 만든 자료이다.

『제현유적(諸賢遺蹟』은 노송정 이계양의 자손을 비롯하여 1500년대 영남 명현들의 간찰소지시 등다양한 자료 총 12점을 첩으로 배접해 놓은 것이다. 여기에는 1559년 퇴계간찰 · 이황 자필 한유(韓愈)율시(律詩) · 이완(李完)의 간찰 · 1573년 구봉령(具鳳齡, 퇴계문인) 간찰 · 1589년 김택룡(金澤龍, 퇴계문인) 간찰 · 1501년 이식(李埴) 호노(戶奴) 소지(所志) 등이 있다.

『선현묵첩(先賢墨帖)』은 노송정 후손을 포함한 1600~ 1700년대 영남명현들이 쓴 10종의 간찰첩으로 퇴계 · 이녕(李甯) · 이홍중(李弘重) · 이명익(李溟翼) · 이동표(李東標) 등이 보낸 간찰이다.

이외에 1554년 동중친계입의(洞中親契立議), 1602년 온계동령(溫溪洞令)과 재산관련 자료 등이 보관되어 있다.

5. 조사자 의견

진성이씨는 시조의 장남인 자수가 기곡(岐谷, 청송군 파천면 신기리)에서 1383년경 마리촌(안동시 풍산읍 마애리)으로 이주하면서 안동에 정착한 것이다. 그 뒤 와룡면 주하리로 옮겨 실질적으로 정착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주하리에 정착한 진성이씨는 후손들이 안동지역 비롯한 인근지역으로 주거지를 확산하여 나갔다. 진성이씨 온혜파는 주하리에 터를 잡고 살아온 이정의 셋째 아들 노송정

이계양(李繼陽, 1424~1488)이 분가하면서 온혜리에 정착하게 된다. 그는 처음 예안현 동쪽 부라촌(浮羅村, 지금은 예안면 부포)에 살았는데 훈도가 되어 봉화로 가는 길에 온계를 지나게 되었다. 이곳에서 스님을 만나 그가 정해 준 곳에 집을 짓고 살게 되었다고 한다. 이 집이 바로 현재의 종택이라고 한다.

퇴계 선생이 엮은 『온계전거사적(溫溪奠居事蹟)』 · 신용개(申用漑, 1463-1519)의 이계양의 묘갈명 등 집안에 전하는 여러 자료를 보면, 종택을 건립한 시기는 계양(繼陽, 1424-1488)이 이곳에 이거하여 1454(단종 2)년경에 건립하였고, 여러 차례 중수한 것으로 보인다.

진성이씨 온혜파 종택의 가장 상징적인 것은 성리학의 거유 퇴계 이황이 태어난 곳이라는 점이다. 그를 통하여 배출한 영남학파의 성리학 연구뿐만 아니라, 향촌사회의 정치 · 사회적으로 큰 영향과 집에 내려오는 전통문화의 계승 등을 다음 몇 가지로 요할 수 있을 것이다.

1. 진성이씨 온혜파 종택은 건립의 연대가 1500년대로 그 뒤 여러 번 중수한 것으로 보이지만, 가장 상징적인 것이 조선시대 가장 뛰어난 성리학자의 한 사람인 퇴계 이황(李滉, 1501-1570)이 태어난 방인 태실(胎室)이 있는 집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이 집에는 퇴계선생 탄생에 관한 일화로 퇴계선생의 어머니인 춘천박씨 (1470~1537)는 공자가 집 대문을 열고 들어오는 꿈을 꾸고 퇴계를 낳았다고 전해진다.

2. 봉제사 접빈객이라는 종가의 상징적 문화가 그대로 이어오고 있다. 제례는 입향조 이계양(李繼陽, 1424~1488)의 불천위를 비롯하여 4대봉사하고 있다. 불천위 제사는 고위와 두 분이며, 그 외 고조고비위, 증조고비, 조고비위, 고비위으로 기제사만 모두 10번이다. 그리고 명절의 차사는 설날과 추석 차례가 있다. 추석 차례에 햇곡이 나지 않으면 추석 대신 중구절에 제사를 지내기도 했다. 그리고 현 종손 이창건(李昌建, 1946-)의 조부 이범교(李範敎, 1898-1983)가 계실 때만 해도 음력 6월 15일이면, 유두천신(流頭薦新)으로 종가의 사당에 햇과일과 햇밀로 만든 국수를 올리고 무축단헌으로 조상에게 제사를 올렸다. 또 유두에 햇과일 나지 않으면 칠석 차사를 올리기도 하였다고 한다. 10월에는 조상의 묘소에 가서 묘사를 지낸다.
   현 종손의 조부가 살아계실 때만 해도 이보다 더 많은 제사를 지냈지만, 조부모님이 안 계시고 시대가 변화면서 제사를 줄였지만, 종가에서 지내는 제사는 거의 다 지낸다고 볼 수 있다.
   종부도 종가집(성주군 수륜면 법산마을 영천최씨 죽헌공파 종가)의 딸로 태어나 종가에서 하는 일들을 보고 자랐고, 시집을 종가로 오면서 종가의 법도를 지키려고 아직도 외부에서 오면 대접하는 풍습은 그대로 하고 있다. 다만, 과거와 달리 차를 끓여내고 떡, 다식 등을 약간 낸다.

3. 진성이씨 온혜파 종택의 고문서는 2014년 1월에 모두 안동국학진흥원에 기탁하였다. 기탁ㅎㄴ 자료는 현판 4점, 3월에 목판 7점과 현판 2점, 2015년 4월 23일에 고서 434종 842책 · 고문서 1,298점 · 서화류 17점 · 기타 3점 총 2,160점 등 고서 · 고문서 · 목판 · 기타류 총 2,173점이다.

고서는 석인본으로 간행한 개인문집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고문서는 노송정 후손들의 수신간찰과 제문, 시문 등으로 구성된 것이다. 시기는 주로 1800년대 중후반 이후로 추정되지만 『가선고적(家先古蹟)』 · 『선조양세유묵(先祖兩世遺墨)』 · 『제현유적(諸賢遺蹟』 · 『선현묵첩(先賢墨帖)』 등 4종의 첩은 1400년부터 1700년대에 이르기까지 작성 시기가 비교적 이르며, 작성자 또한 영남의 유명한 명현들로 이루어져 있다.

종택의 고문서 자료들은 한 가문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영남사림들의 사회상과 문화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가치가 있다.

이와 같이 진성이씨 온혜파 종택은 한 가문의 역사적인 변천과 향촌사화의 변화상을 규명해 볼 수 있는 역사문화적인 자료가 전승되는 공간으로 국가민속문화재 지정 요건에 필요한 역사성, 학술성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안동 진성이씨 온혜파 종택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자 : ○○○ 문화재위원

① 문화재 종류 ; 국가민속문화재

② 문화재 명칭 ; 안동 진성이씨 온혜파종택

③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안동 진성이씨 온혜파 종택은 안동시 도산면 온혜리에 위치하고 있다. 온혜리는 안동에서 북쪽, 청량산으로 가는 35번 국도를 따라 3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동네로 예부터 온천(溫泉)이 있어서 겨울에도 얼지 않으므로 온계(溫溪)라고도 부른다. 이 물은 북쪽에서 오는 태자리의 물을 합하여 큰 내를 이루어 꺾이어 동남쪽으로 흘러 토계리에 이르러 퇴계(退溪)가 되고, 토계리의 남쪽에서 낙동강으로 들어간다.

종택의 주변으로 온계(溫溪) 이해(1496～1550)의 종택인 삼백당과 칩와당(蟄窩堂) 이장형(李長亨, 1597~1671)의 안동 칩와당 고택이 위치하며, 안동 칩와당 고택은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436호로 지정되어 있다.

④ 연혁·유래 및 특징 ;

안동 진성이씨 온혜파 종택은 진성이씨 시조인 이석(李碩)의 현손이자 퇴계 이황의 조부인 노송정(老松亭) 이계양(李繼陽, 1424~1488)이 1454년(단종 2)에 건립하였다. 건립과 관련된 기록은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0)이 쓴 <온계전거사적(溫溪奠居事蹟)>과 송계(松溪) 신용계(申用漑, 1463~1519)가 지은 이계양의 묘갈명(墓碣銘)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이 외에도 1588년(선조 21) 11월 지간(芝澗) 이종도(李宗道, 1535~1602)가 가묘(사당)를 개수한 후에 지은 <가묘개창상량문(家廟改創上樑文, 1588)>과 선조퇴계선생태실중수기(先祖退溪先生胎室重修記, 1931), 노송정중수상량문(老松亭重修上樑文, 1943), 성림문중수기(聖臨門重修記, 1965) 등 건립과 중수에 관한 기록이 다수 남아있어 종택이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화되어온 과정을 살펴 볼 수 있다.

⑤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

［건축적 가치］

1. 안동 진성이씨 온혜파종택 배치 ;

종택은 용두산을 조산으로 명지산을 안산으로 하여 남향으로 자리하고 있다. 종택의 출입문인 임성문을 들어서면 좌측에 口字形 본채가 자리하고 정면에 제청인 노송정을 마주하게 된다.

대지를 삼단으로 조성한 후 본채와 노송정은 이단에 앉히고 방형토장을 둘렀다. 그리

고 노송정 우측에 한단 높게 대지를 조성한 후 사당을 위치시켜 위계에 따른 배치에 충실하였다. 따라서 언 듯 사당이 종택 우측외곽에 자리하고 있는 듯하다. 노송정과 사당사이에 뚝향나무 한그루가 자라고 있다. 이계양의 호인 노송정은 이 뚝향나무에서 기인하였다고 전하며 당시의 나무는 1902년 폭설로 죽은 후 후계목으로 심은 나무라 한다. 대문채 옆 화장실과 본채 배면의 창고 등 건물은 근래에 건립되었다.

2. 본 채 ;

본채의 규모는 정면 7간, 측면 6간이며, 평면형은 북부지방 반가에서 주로 채택되는 口字形이다.

공간구성은 일반적인 반가와 동일하게 전면은 사랑영역이, 뒤편에 여성공간인 안채를 앉히고 양익사는 수장공간, 또는 함실로 보조영역을 이루고 있다. 전면 중문간을 중심으로 우측에 사랑영역이 좌측으로는 조모가 기거하는 서상방이 자리하고 있다. 우측 사랑공간은 2칸통의 사랑방과 마루방이 연결되고 마루방 뒤편, 즉 우익사에 작은사랑방이 자리하면서 사랑공간이 이루어진다. 사랑으로의 접근 동선은 우측면 모서리부분에 설치된 계단을 이용하고 있다. 이는 사랑 전면 담장과 사이 공간이 협소하여 사랑마당을 둘 수 없어 노송정 전면마당이 사랑마당의 역할도 함께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2칸통(二間通)의 사랑방 전면으로 반칸 폭의 퇴칸마루를, 우측 작은사랑방쪽으로도 툇마루를 둔 후 계자난간을 세워 사랑으로의 위용을 갖추었다. 사랑방은 전면에 머름을 둔 쌍여닫이세살문을 매간 설치하였고 마루방은 궁판을 넣은 사분합들문을, 우측편에도 사분합들문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사랑방과 마루방 사이에도 사분합들문을 설치하고 작은 사랑방은 쌍여닫이문을 설치하였다. 따라서 사랑방과 마루방, 외부와의 공간 확장성이 매우 높아 필요에 따른 공간의 융통성이 매우 높다. 작은사랑 뒤편에 통례간을 두고 안채와 연결시키고 노송정과 사당으로의 출입도 용이하도록 배려하였다.

우익사와 연결된 안채는 안대청을 중심으로 우측에 보방향 2간통의 온돌방이 자리한다. 시집 온 며느리가 기거하는 온돌방은 우측쪽으로 툇마루를 두어 외부에서 직접 방으로 출입이 가능토록 하였다. 안대청은 전면은 개방되고 뒤편은 하부에 머름이 설치된 쌍여닫이 골판문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중방에 기대어 시렁을 두어 집기들을 올려놓았다. 대청 좌측 도리방향으로 2칸통 안방은 시어머니가 기거하는 방이며 부엌쪽으로 다락에 오르는 계단을 다락으로 오르게 하였고 상부 다락은 내정쪽으로 환기창을 두고 있다. 안방 앞쪽 1칸에 부엌과 태실을 연결하는 퇴칸마루를 두었다. 좌측의 부엌은 4칸규모이나 현재는 현대식 부엌으로 개조되었으며 좌익사와 연결된다. 좌익사는 현재 3칸통 온돌방으로 개조 되었으나 과거 부엌 쪽 2칸은 중방 하부가 골판벽과 골판문으로 벽체가 구성된 것으로 볼 때 고방인 듯하다. 좌익사와 연결된 전면에 과거 조모가 기거하던 마룻방 1간과 온돌방으로 구성된 서상방이 자리하고 전면과 측면으로 툇마루를 두었다. 전면의 중문간은 2칸으로 중문칸, 태실, 안방이 남북으로 축을 이루고 있으며 본채의 중심에 자리한다. 그런데 중문과 마주하는 뒤편에 가림벽을 두어 외

부에서 직접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하고 사랑부분 퇴칸마루에도 가림벽을 두어 공간의 영역을 뚜렷이 하고 있다.

종택에 가장 중심이 되는 태실은 내정 중앙에 자리하고 있다. 안채 툇간마루와 연결되는 한칸 규모 온돌방과 반간 폭의 누마루로 구성되어있다. 태실 삼면은 계자난간을 두어 상징성을 높인 듯하다. 태실은 원래 이 지방에서는 산실이라 부르며 매우 신성한 공간으로 여기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안동 의성김씨종택, 안동 임청각 등 반가에서 자주 접할 수 있다. 태실 온돌방 삼면에는 쌍여닫이문을 두고 내부는 미서기문을 둔 겹창형태이며 누마루 상부는 우물천정으로 마감하였다. 방 전면에 1962년 개액된 <선조퇴계선생태실중수기>가, 처마밑에 <퇴계선생태실>이라는 현판이 걸려있다.

안채와 사랑은 퇴칸이 있는 홑처마 5량구조이며 양익사는 3량 구조이다. 따라서 지붕모양이 다채롭다. 안채부분의 용마루가 전면 사랑채보다 높게 처리하였고 3량구조인 양익사는 정자형지붕으로 연결시켰다. 그리고 전면은 팔작지붕모양으로 처리하여 노송정 전면 마당에서 볼 때 서산각지붕형으로 인식된다.

3. 노송정(老松亭) ;

본채 우측에 자리하면서 전면 대문채와 남북축을 이루고 있는 노송정은 제청으로 사용된다. <노송정중수상량문;1943년>에 의하면 지간옹(芝澗翁) 이종도(李宗道;1535~1602)가 만력(萬歷) 기축년(己丑年;1589)에 9칸으로 건립하였다고 한다. 현재의 규모도 정면 4칸, 측면 2칸에 좌측으로 1칸 누마루가 돌출되어있어 당시의 규모와 같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러 차례의 보수 및 중수가 있었으나 위치 및 규모가 당시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평면구성은 좌측에 대량방향으로 2칸통의 온돌방을 두고 우측에 6칸의 넓은 대청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온돌방 전면으로 누마루 1칸을 두었다. 대청 배면과 우측면에는 매칸 쌍여닫이 판장문과 골판벽을 두었다. 문틀은 반연귀수법으로 결구되고 하부 문지방 아래에 하방과 여모중방을 두어 일반적인 법식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온돌방과 대청사이에 사분합들문을 두어 필요시 공간의 확장을 고려하였다. 특히 온돌방 전면에 돌출된 누마루는 장주초석에 계자난간을 두어 언 듯 정자인 듯하다. 이는 향사시에는 제관들이 사용하는 곳이지만 평시에도 사랑손님들이나 문중모임 등에 이용되는 관계에 기인한 고려인 듯하다.

상부구조는 제형판대공을 세운 5량구조의 굴도리집이다. 그리고 돌출된 누마루부분은 3량 박공형으로 처리하여 지붕은 정자형으로 처리하였고 우측은 합각지붕으로 마감하여 좌우가 비대칭이다.

노송정이란 당호는 이곳에 종택을 건립한 이계양(李繼陽)의 호이며, 노송은 건립시 심은 뚝향나무에 기인한다고 한다. 정내에는 퇴계선생의 탄생을 의미하는 <해동추로(海東鄒魯)>, <산남락민(山南洛閩)> 등의 편액이 걸려있다.

4. 사당 ;

노송정 우측편에 대지를 한단 높게 조성한 후 방형토장에 전면에 사각문을 설치하고 내부에 정면 3간, 측면 1간반 규모의 사당을 앉혔다. 사당내는 불천위인 이계양을 좌측편에 모시고 4대봉사를 하고 있다. 장대석면석에 상부에 갑석을 올린 화강석 기단을 두고 덤벙주초에 방주를 세운 사당을 앉혔다. 평면은 전면에 우물마루를 깐 반간폭의 툇간을 두고 뒤편으로 3간통의 건물을 세웠다. 사당은 전면에 매간 궁판을 둔 쌍여닫이세살문을 두고 벽체는 회분벽으로 마감하였다.

상부구조는 5량구조인데 내진주 위에서 퇴량과 대량을 합보 시키고 종량위에 제형판대공을 세우고 양측에 풍판을 둔 맞배지붕을 구성하였다. 그런데 근래에 사당건물을 보수하면서 면딱기하여 깨끗하나 고재(古材)엔 과거 단청을 올린 흔적이 남아있고 전면 기둥은 하부 여모중방에서 상부 장여사이에 모죽임하여 언 듯 팔각기둥인 듯하다.

5. 대문채 ;

정면 6간, 측면 1간 규모의 건물이다, 가운데 대문간을 중심으로 좌측으로 온돌방과 부엌이 자리하고 우측으로 방 1칸과 2간 부엌이 자리한다. 대문간부분 지붕만 한단 높게 꾸민 솟을지붕형이며 좌우지붕은 맞배로 처리하였다.

학봉 김성일이 지은 <퇴계언행록>에 문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으며, 대문간에 공자가 든 문이라는 의미의 <임성문>이란 편액과 <중수기>가 개액되어 있다, 현재의 문은 중수되었고 중수내용에 관한 언급은 없으나 중수기문에 글은 1965년 짓고 70년에 썼다고 기록하고 있어 중수는 65년 이전에 된 듯하다.

현재의 대문채는 정면 6간 측면1간규모의 3량 홑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다. 가운데 대문간을 중심으로 좌측에 방과 부엌이 있으나 과거 온돌방 1간과 마루방 1간으로 구성된 행랑공간으로 추정되며 우측은 방과 부엌 2간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또한 과거에는 방2간과 마굿간인 듯하다.

종합의견 ;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0)의 조부인 노송정(老松亭) 이계양(李繼陽, 1424~1488)이 건립하였다고 전하는 안동 진성이씨 온혜파 종택은 그간의 내력이 퇴계가 쓴『사적事蹟』[2], 송계(松溪) 신용개(申用漑, 1463~1519)가 지은 이계양의 묘갈명에 잘 기록되어있다. 그리고 건립 이후 약 130년 후인 1588년 이종도(李宗道, 1535~1602)가 가묘(사당)를 개수한 후에 지은 상량문과 1928년 종택을 수리하기 위해 돈을 모은 후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종택수리소가 남아있어 건립에서 근래까지 건축에 대한 기록이 잘 보존되고 있다. 이는 주거건축물이 역사인문환경에 따라 변화되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퇴계선생이 출생한 태실과 조선중기 반가에서 건립된 제청이 보존되고

2) 선성지, 온계(溫溪) 사적(事蹟), 유교넷

있어 주거환경 변화에 따른 건축의 변화양상도 잘 간직하고 있다. 또한 현재도 종손이 거주하면서 관리와 민속적 가치 보존에 힘쓰고 있어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 보존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국가민속문화재 지정조사 의견서

조사자 : ○○○ 문화재전문위원

1.대상유적 : 퇴계태실(경상북도 민속자료 제60호)

2.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온혜중마길 46-5

3.창건과 변천

진성이씨(眞城李氏)는 이석(李碩)을 시조(始祖)로 하며, 2세손인 그의 아들 이자수(李子脩)가 경상북도 안동시 일대로 세거해 온 이래로 오늘날까지 후손들이 집성촌을 이루며 거주해 오고 있다. 오늘날 진성이씨 분파는 여러 파로 확장, 분류되어 왔으며 그 중 이자수의 아들 이운후(李云候)를 파조(派祖)로 하는 주촌파(周村派)의 종택(안동시 와룡면 소재)인 '안동(安東) 진성이씨(眞城李氏) 주촌종택(周村宗宅)'이 지난 2017년 6월 29일 국가민속문화재 제291호로 지정, 관리되어 오고 있다.

'안동(安東) 진성이씨(眞城李氏) 온혜파종택(溫惠派宗宅)'은 진성이씨의 또 다른 분파인 온혜파(溫惠派)의 종가(宗家)로 파조인 노송정(老松亭) 이계양(李繼陽,1424~1488)이 오늘날 안동시 도산면 온혜리에 세거하게 되면서 건립한 것으로 전하고 있다. 온혜리는 예로부터 온천(溫泉)이 있어서 겨울철에도 물이 얼지 않아 온계(溫溪)라고도 불렸다고 한다. 이계양은 안동지역의 불천위(不遷位) 50위 중 한 명으로 조선초기 단종(端宗)이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선양하자 스스로 벼슬을 버리고 온혜리로 입향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계양은 퇴계 이황선생의 조부가 되며 퇴계선생이 현 종택의 태실에서 출생하였다고 한다.

종택은 뒷산 끝자락의 평지가 시작되는 곳에 남향을 하여 자리 잡고 있으며 안채, 사랑채로 구성된 본채와 별당(別堂)인 노송정(老松亭), 불천위(不遷位) 이계양의 제사를 모시는 사당 등이 그 일곽을 이루고 있다.

온혜파종택의 창건(創建) 등 건립 내력은 진성이씨 온혜파(溫惠派) 가문에 전해져 내려오는『노송정중수상량문(老松亭重修上梁文)』,『가묘개창상량문(家廟改創上梁文)』등의 기록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으며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연도	내용	관련인물
1454년	종택(宗宅) 건립	이계양
1588년	가묘(家廟) 개창(改創)	이종도
1589년	노송정(老松亭) 건립	이종도

1928년	종택수리소 작성	이재호 등
1931년	종택 수리	이범교
1943년	노송정 중수	이상호

먼저, 오늘날 종택의 본채는 이계양에 의해 1454년 최초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본채가 건립된 지 134년이 지난 1588년에 가묘(家廟)를 개창(改創)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이전에도 어떤 형태로든 본채와 함께 가묘가 존재하였던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이듬해인 1589년에 이르러 노송정이 건립됨으로서 비로서 오늘날과 같이 본채(종택), 별당(노송정), 가묘(사당)의 일곽을 갖추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선조퇴계선생태실중수기(先祖退溪先生胎室重修記)』에는 1501년 퇴계 이황선생이 오늘날 온혜파종택의 태실에서 태어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퇴계선생 태실의 경우 현존하는 다른 종택의 일반적인 태실과 달리 안채와 丁자형으로 연결된 특이한 배치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본래의 모습이 아닌 후대에 변형된 결과로 보인다. 다시 말해, 태실을 포함한 온혜파종택의 본채는 최초 건립된 후 중수 등의 과정을 거쳐 적지 않은 변형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내용은 1985년 온혜파종택(당시 퇴계태실)의 시·도문화재(경상북도 민속자료) 지정 당시 관계전문가의 현지 조사의견서(*"…안채의 경우 최초 건립 당시의 모습에서 많은 개축이 있어 본래의 형태는 알 수 없다…", "…건물 전체로 보아 원래의 평면은 아닌 듯 개축 시 많은 변화가 있는 듯 생각 된다…"*)에서도 제기된 바가 있다. 또한, 조사의견서에는 *"…55년 전(지정조사보고서가 1985년 작성된 것이므로 55년 전은 1931년이 됨) 전면 개축하였다…"*라는 내용도 기술되어 있는데 이는 위의 〈표〉에서 1931년에 이르러 종택을 수리하였다는 내용(*"지난 신미년(1931)에 지금 종손 이범교가 옛집을 다시 넓혔다"*(선조퇴계선생태실중수기(先祖退溪先生胎室重修記) 중))과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종택의 본채는 1931년에 이르러 필요에 의해 전면 개축되어 오늘날의 모습과 같이 변형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는 있으나, 정확한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현재의 온혜파종택은 전체적인 평면구성 및 배치형식이 상류주택의 배치요소를 고루 갖추고 있고 또한 퇴계선생의 태실이라는 의미가 인정되어 1985년 10월 경상북도 민속자료 제60호 '퇴계태실(退溪胎室)'로 지정되었으며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종택을 비롯하여 노송정, 사당, 대문채(성림문), 담장 등의 크고 작은 보수 공사가 있었으며, 2014년에는 문화재 특별 종합점검을 시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보존, 관리되어 오고 있다.

4.건축구조 및 양식

전체적으로 종택은 안채와 사랑채로 이루어진 본채와 별당인 노송정, 가묘인 사당이

남향을 하여 배치하고 있다. 一자형으로 배치된 솟을대문 형식의 대문간채(성림문)을 들어서면 정면에 별당인 노송정이 위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좌측으로는 ㅁ자형의 본채, 우측으로는 별도의 영역으로 일곽을 이루고 있는 사당이 자리 잡고 있다. 사당 내부에는 진성이씨 온혜파 파조이며 종택을 창건한 노송정 이계양의 불천위가 모셔져 있다. 주거 및 민속적 관점에서 온혜파종택의 가치가 평가되는 것은 퇴계태실(또는 산실)의 존재와 함께 노송정(사랑공간 및 제청)이 본채에서 분리되어 별당형식으로 건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온혜파종택에서와 같이 현존하는 상류주택 내에 태실을 살펴볼 수 있는 사례로는 '경주 양동마을 송첨고택'과 '안동 의성김씨 종택', '안동 임청각' 등이 있는데 퇴계태실은 공간구성 방식에서 이들과 달리 독특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종택의 본채(안채,사랑채)가 증·개축과정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로서는 최초 건립 당시의 종택의 모습과 태실의 원형을 확인 할 수 없다.

별당 형식을 취하고 있는 노송정은 일종의 사랑영역으로 제청(祭廳)의 기능을 겸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앞의 〈표〉에 기록된 건립 연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안채, 사랑채 등 종택의 본채가 먼저 완성된 후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필요에 의해 새롭게 건립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선행 연구에 의하면 이와 같은 양상은 사랑채 영역이 확대·분화되어 나아가는 과정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오늘날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상류주택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평면구성에 있어서는 온돌방 전면으로 누마루(정면1칸, 측면1칸)가 달여 있는 것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온혜파종택을 구성하고 있는 각 영역별 구성공간들의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안채는 여성들의 주생활공간으로 대청을 중심으로 우측에는 상방, 좌측으로는 안방이 위치하고 있으며 안방 옆으로는 부엌, 다시 그 앞으로는 고방을 익랑 형태로 달아냈다. 태실은 정면1칸, 측면1칸반 규모의 누(樓)형태로 안채의 대청 정면에 면하여 丁자형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1칸의 온돌방과 그 앞으로 반칸의 대청마루를 설치하였다. 기둥은 모두 방주(方柱)를 사용하였으나 태실 정면에 사용된 2개의 기둥은 원주(圓柱)로 사용하였는데 후대에 교체된 것으로 보인다. 안채는 5량 구조에 홑처마 맞배지붕, 태실은 홑처마의 팔작지붕이며 태실 정면 처마 밑에는 '退溪先生胎室'이라 쓰여진 현판이 달려 있다. 현존 안채와 태실의 배치 및 공간구성 방식 등은 최초 종택이 건립될 당시에서 많은 변형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사랑채는 정면3칸, 측면3칸 규모이며 마루방을 중심으로 큰사랑방과 작은사랑방이 ㄴ자형으로 위치하고 있으며 안채와는 상방 정면으로 쪽문을 사이에 두고 연결되어 있다. 사랑채의 정면으로는 툇마루, 측면으로는 쪽마루를 놓았고 마루 끝에는 계자난간을 설치하여 장식하였다. 마루방의 정면과 측면에는 들어 올릴 수 있는 세살청판분합문을 달아 개방성을 높였으며 작은사랑방 배면으로는 외여닫이세살문을 두어 직

접 안채로의 출입이 가능하게 하였다. 지붕가구는 5량으로 구성하였으며 지붕은 홑처마 팔작지붕으로 하였다.

· 안채의 좌익랑채(고방) 정면으로는 정면2칸, 측면1칸 규모의 서상방이 ㄴ자형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우측편으로 중문을 사이에 두고 큰사랑방과 대칭을 이루고 있다. 서상방의 정면과 좌측면에는 쪽마루를 설치하여 출입하도록 하였으며 중문 안쪽에는 판벽으로 만든 내외담을 설치하여 안채의 직접적인 시선을 차단하고 있다.

· 노송정은 별당 형식의 사랑영역으로 종책의 본채영역 우측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면4칸, 측면2칸으로 구성된 몸체의 좌측에 정면1칸, 측면1칸의 누마루가 달려 전체적으로는 ㄱ자형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노송정 중수 상량문에 *'…1589년(선조22)에 9칸으로 구성하여 지었으며'*라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현재의 규모와 동일한 것을 알 수 있다. 몸채는 6칸의 대청마루와 온돌방 2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붕가구는 5량 구조이다. 지붕은 맞배지붕과 팔작지붕이 섞여 있는데 좌측은 누마루 지붕과 연결을 위해 맞배지붕으로 하였으며 우측은 대들보 위에 충량을 놓고 그 상부에 외기를 짜서 팔작지붕을 구성하였다. 대청마루와 온돌방 사이에는 세살청판분합을 설치하여 개폐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누마루의 3면에는 헌함을 돌려 계자난간을 설치하였으며 난간청판에는 운문 형태로 장식된 풍혈을 뚫었다. 누마루 하부에는 온돌방의 난방을 위해 함실아궁이를 설치하였다.

· 노송정 전면으로는 비교적 넓은 마당을 사이에 두고 정면6칸, 측면1칸 규모의 솟을대문 형태의 대문채가 위치하고 있는데, '성림문중수기(聖臨文重修記)'에 의하면 퇴계 이황선생의 어머니 춘천박씨가 '공자가 대문안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고 이황선생을 낳았다'는 데서 연유하여 '성림문(성인이 든 문)'이라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현재 내부는 방과 부엌으로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가구는 3량 구조, 지붕은 홑처마 맞배지붕이다.

· 사당은 노송정 우측편에 토석담장을 둘러 별도의 영역을 구성하고 있다. 정면 3칸, 측면 1칸 반의 규모로 내부는 3칸 모두를 통칸으로 구성하였으며 노송정 이계양의 불천위가 모셔져 있다. 가구는 5량 구조, 지붕은 홑처마의 맞배지붕이며 양측면에는 풍판을 설치하였다. 기둥은 모두 방주를 사용하였으나 전면 퇴칸에 사용된 4개의 기둥은 8각 형태로 가공하였다. 정면 창호는 모두 쌍여닫이 세살청판분합문을 달았으며 내부바닥은 우물마루를 깔았다.

5.지정가치

□ 종택(노송정, 가묘)의 건립과 관련된 다수의 기록이 남아 있어 창건 및 중건 등의 건축적 내력을 비교적 명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또한, 현재 종택 내에 종손이 거주하여 직접 관리하고 민속적 제례행위가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어 민속문화재적 보존 가치는 있다고 할 수 있다.

□ 이와 함께 본채, 별당, 가묘 등의 건축물들을 통해 소위 종택에 내재되어 있는 유교

적 질서체계를 살펴볼 수 있고 또한 종택을 이루고 있는 각 영역(안채, 사랑채 등)들의 공간구성 및 배치형식 등이 경북 안동지역 일대의 상류주택에서 보이는 보편적 특징(건축적 규범) 등을 비교적 잘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퇴계태실은 종택의 역사적 가치를 더 한다고 할 수 있겠다. 다만, 1985년 온혜파종택(당시 퇴계태실)의 시·도지정문화재(경상북도 민속자료) 지정 당시 조사의견서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종택의 본채(안채, 사랑채, 태실)가 증·개축되는 과정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국가민속문화재로의 승격, 지정이 타당한 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안건번호 민속 2018-04-07

7. 세종 부강리 고택 지정명칭 변경 검토

가. 제안사항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38호 「세종 부강리 고택」 지정명칭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고자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민속문화재 제138호 세종 부강리 고택 지정명칭을 지침(변경안)에 따라 역사문헌자료와 유래, 특징, 소유자 요청 등에 맞추어 조정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세종특별자치시장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38호「세종 부강리 고택」

○ 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용포동촌길 43-19(부강리)

(3) 신청내용

지정번호	현행 지정명칭	변경(안)	변경사유
138	세종 부강리 고택	세종 홍판서댁	○안채의 대청마루에 상량문에 따르면 1866(고종 3년)에 지었음 ○1898년(광무 2년)~1904년(광무 8년)「충청남도 문의군양안」작성 시기 때 가옥 소유자인 홍순형(洪淳馨)성명 기록되었음 ○홍순형(1858~미상)은 조선후기의 문신으로, 자는 여문(汝聞), 본관은 남양, 헌종비 효정왕후의 조카임 ○1874년(고종11) 문과급제후, 동부승지, 여주목사, 1884년 이후 이조참판·성균관 대사성·사헌부 대사헌·예조참판·평조판서·한성판윤·예조판서 등을 역임 ○구전으로 '홍판서댁'으로 전해져 왔음 ○지정명칭 부여지침에 따라 고택의 창건시기(1866년)와 역사적 문헌, 고증, 지역에서 널리 통용되는 명칭을 고려하여 '세종 홍판서댁'으로 함

※ 지정명칭 조정 의견제출 현황

검토자		지정명칭 변경의견	사 유
지방자치단체(세종시)		세종 홍판서댁	ㅇ현재 지정명칭과 ‘청주 부강리 고가’(충청북도 문화재)의 명칭이 유사하여 방문객의 혼선이 우려되므로 ‘세종 홍판서댁’으로 함
소유자(ㅇㅇㅇ)		세종 홍판서댁	ㅇ『광무양안』의 기록에 따르면 홍순형이 당시 소유자이며, ‘홍판서댁’이 구전으로 전해오므로 ’세종 홍판서댁‘으로 함
관 계 전문가	청주대학교 교수 ㅇㅇㅇ	세종 홍판서 고택	ㅇ세종 부강리 고택은 역사성이 결여되었으므로 소유자의 이름을 근거로 하여 ‘세종 홍판서 고택’으로 변경
	충북대학교 명예교수 ㅇㅇㅇ	1안: 세종 부강리 고택 2안: 세종 부강리 홍순형 고택	ㅇ1안 : 현재 명칭이므로 무난함 ㅇ2안 : 상량문의 창건시기가 1866년 이고, 1904년 작성한 토지대장인 『문의군양안』에서 소유주가 홍순형이므로 ‘세종 부강리 홍순형 고택’으로 함

라. 검토의견

ㅇ 지정명칭 부여지침 및 소유자, 지자체 의견, 관계전문가 자문 등에 따라 문화재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사항(추진경위)

ㅇ ‘17.2.28 국가민속문화재(건조물) 137건 지정명칭 변경 고시
- 「세종 유계화 가옥」 → 「세종 부강리 고택」으로 변경

ㅇ ‘17.8.3 국가민속문화재 지정명칭 변경 요청(세종시→문화재청)
- 「세종 유계화 고택」으로 환원 요청

ㅇ ‘17.8.4 국가민속문화재 지정명칭 변경 회신(문화재청→세종시)
- 종합정비 기본계획 용역에 명칭관련 연구(고증) 추진 요청

ㅇ ‘18.6.28 국가민속문화재 지정명칭 변경 요청(세종시→문화재청)
- 종합정비 기본계획 용역 결과 고택에 대한 고증자료 제출

바.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붙임 : 고증자료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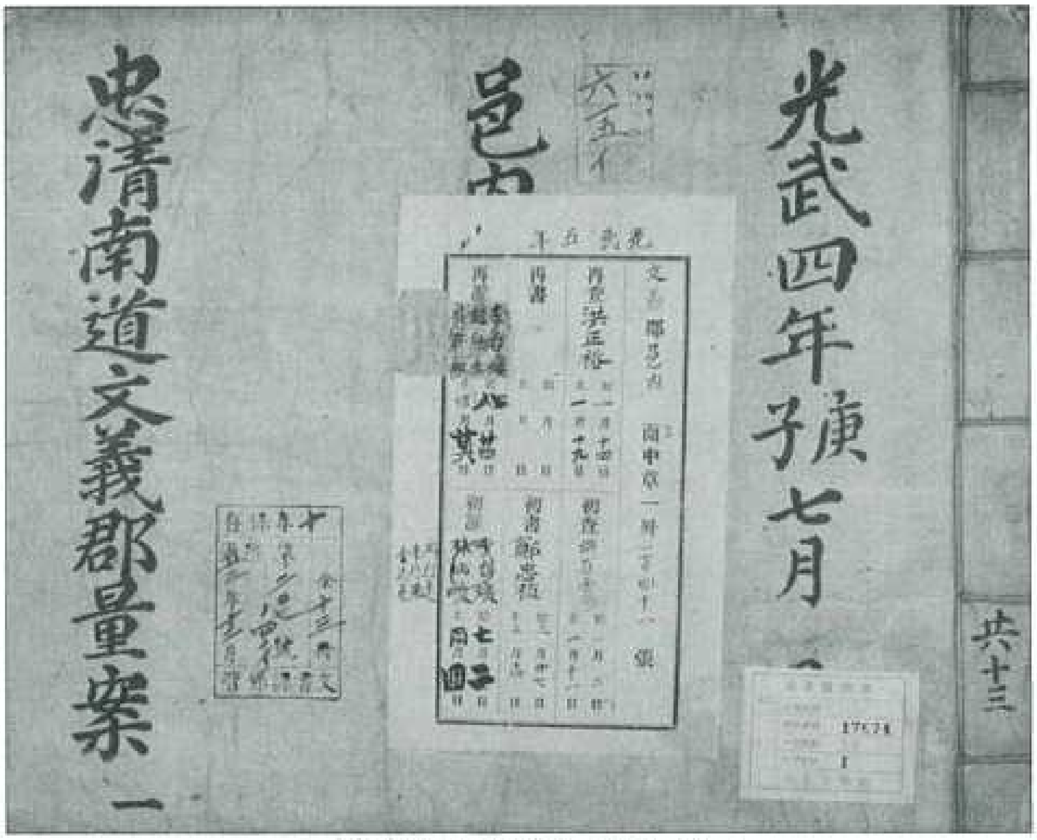
2. 고택의 역사

▮ 창 건

- 안채의 대청 마룻대에 "숭정기원후 4 병인 2월24일 신시 상량(崇禎紀元後四丙寅二月二十四日申時上樑)" 이라 쓰여 있어 1866년(고종 3년)에 지었음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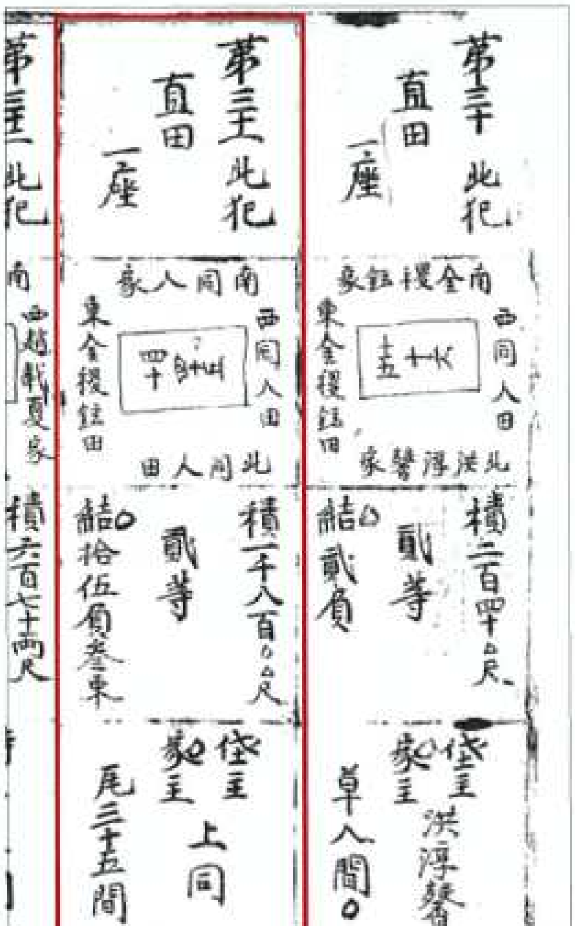
▮ 소유자

- 양안은 조선왕조에서 조세의 중심인 전세를 징수하기 위해 토지를 측량해서 군 단위로 파악했던 지대장부임
- 문의는 광무 2년(1898)에서 광무 8년(1904)까지 작성한 『광무양안』이 남아있으며, 충북의 양안은 광무 4년(1900)에 문의 · 진천 · 괴산 · 음성 양안이 만들어졌고, 광무 5년(1901)에 회인 · 연풍 · 청안 양안이 작성되었으며, 광무 6년(1902)에 충주와 영춘의 양안이 나왔다. 1900년에 만든 『문의군양안』은 13책으로 각각 편책해서 표지에 면의 이름을 기록되어있다 제1 · 2책은 읍내면, 제3 · 4책은 동면, 제5 · 6책은 남면, 제7 · 8책은 일도면, 제9책은 이도면, 제10 · 11책은 삼도면, 제12 · 13책은 북면임



< 『충청남도 문의군양안』 규장각 소장 >

- 부강의 제1위 지주인 동시에 문의에서 가장 많은 토지를 소유한 지주는 판서 홍순형(洪淳馨)이었다. 양안에 기재된 217,299척을 정보로 환산하면 24정보(72,000평)임
- 홍순형은 헌종의 계비(繼妃)인 효정왕비(孝定王妃, 1831~1903)의 조카이며, 효정왕비는 철종 대와 고종 대에 왕실의 어른인 왕대비와 대왕대비로 영향을 행사했다. 홍순형이 문과급제 후 동부승지와 여주목사, 그리고 개성유수 등 요직을 맡게 된것은 그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1884년 이후 이조참판 · 성균관 대사성 · 사헌부 대사헌 · 예조참판 · 형조판서 · 한성판윤 · 예조판서 · 황해감사 · 경기감사 · 광주유수 · 궁내부 특진관 등을 지내는 등 관직 이력이 화려하였다. 『광무양안』이 작성될 때도 의정부 찬정과 표훈원 부총재, 시강원 일강관 등을 맡고 있었음
- 홍순형의 본래 세거지는 경기도 양주였고, 중요한 중앙 관직과 지방 요직을 연이어 역임한 까닭에 용포에서 항상 거주하지는 않은 것 같고, 별서(別墅)와 같은 성격으로 많은 토지가 있던 부강에 와서 잠시 지낼 때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됨



< 『광무양안』에 기재된 홍순형 기와집 >

안건번호 민속 2018-04-08

8. 제천 박용원 고택 지정명칭 변경 검토

가. 제안사항

충북 제천시 금성면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37호 「제천 박용원 고택」지정명칭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고자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민속문화재 제137호 제천 박용원 고택 지정명칭을 지침(변경안)에 따라 명칭변경 부여 지침, 소유자 요청 등에 맞추어 조정하려는 것임

※ 소유자는 박용원이 고택과 관련인물인지 확인 불가하다고 주장하며 변경 전 명칭인 박도수 고택으로 환원 요청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제천시장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37호 「제천 박용원 고택」

○ 소재지 : 충북 제천시 금성면 구룡리 305번지

(3) 신청내용

○ 「제천 박용원 고택」에서 「제천 박도수 고택」으로 환원 요청

※ 지정명칭 조정 의견제출 현황

검토자	변경 지정명칭 의견	사 유
지방자치단체 (제천시)	1안:소유자의견에 따름 2안:'제천 구룡마을 고택'	○소유자 의견을 따라주되, 지침 상 불가능하다면 '제천 구룡마을 고택'으로 함
소유자	제천 박도수 고택	○지정당시 소유자인 '박도수 고가'명칭을 되찾고자 함 ○명칭회복 서명 : 김경래 등 115명
관계전문가 강동대학교 교수 ○○○	'마을명+고택' (제천 구룡마을 고택)	○안채 상량문에 따르면 1864년 건립되었음 ○박용원은 박상철의 장자로 태어났으며 고택은 박상철이 건립하였다고 전함 ○고택의 초창내역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지정명칭 부여지침에 따라 '마을명+고택'으로 하는 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됨

라. 검토의견

○ 소유자는 당초 명칭인 박도수 고택으로 명칭 환원을 요구하고 있고, 지역주민 (115명)또한 이에 동조하고 있어 문화재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함

마. 참고사항(추진경위)

○ ‘17.2.28 국가민속문화재(건조물) 137건 지정명칭 변경 고시
  - 제원 박도수 고가 → 제천 박용원 고택으로 변경

○ ‘18.5.29 국가민속문화재 지정명칭 변경 검토요청(제천시→문화재청)
  -「제천 박도수 고택」으로 환원 요청

○ ‘18.6.11 국가민속문화재 명칭 변경 관련 의견 제출 협조(문화재청→제천시)
  - 소유자, 지자체, 관계전문가 의견 요청

○ ‘18.6.20 국가민속문화재 명칭 변경 관련 의견 제출(제천시→문화재청)

바. 의결사항

○ 보류
  - 고증자료 조사 후 재심의

안건번호 민속 2018-04-09

9. 고성 왕곡마을 종합정비계획 조정 및 보완

가. 제안사항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235호「고성 왕곡마을」의 종합정비계획 (보완)을 수립하고자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민속마을의 원형보존을 위한 보존·관리 원칙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립, 민속마을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존·정비의 기준으로 삼고자 '고성 왕곡마을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음(2012년 3차 민속분과 심의 완료)

○ 저잣거리 시설 정비, 나대지 가옥 신축, 개별가옥 정비방안 등 새롭게 요구되는 주민 요구를 수렴하고, 이를 보완한 '고성 왕곡마을 종합정비계획(보완)'의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임

※ 제3차 민속분과('18.6.12.)에서 보류(자료보완 후 재심의)되었던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고성군수

(2) 주요내용

○ 지구별 정비계획 수립(A,B,C,D)

- 왕곡마을 직접보호구역(A), 확대보호구역(B), 생활영위구역(C), 관광환경구역(D)

○ 마을 교량 정비방안

○ 저잣거리 시설 정비방안

- 식당동, 전통한옥체험수련관 등 정비

○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 결정에 따른 생활불편 해소방안 마련

- 개별가옥 정비기준 마련

○ 마을 내 나대지 가옥 신축 방안 마련

- 개별 나대지 내 가옥 신축(복원) 검토기준 마련(실거주, 문화재위원회심의, 원형고증, 소유자부담, 경관조화 원칙)

※ 5대 지표 적용(일체성, 장소성, 마루선, 왜소화, 조망성)

○ 주민자치규약 개정

- 마을운영관리에 따른 마을사업(8장) 및 운영관리(10장), 주민의권리의무(11장) 추가

라. 검토의견

○ 관계전문가 자문 및 마을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012년 기 수립된 '고성 왕곡마을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보완한 것으로 세부시행사항은 문화재청의 설계검토 및 현상변경허가 등을 통하여 재검토하므로 동 계획을 시행함에 있어 문화재의 진정성, 역사성을 저해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민속마을 정체성, 진정성 등을 고려한 현황분석 등 보완

안건번호 민속 2018-04-10

10. 아산 외암마을 종합정비계획 조정 및 보완

가. 제안사항

충남 아산시 송악면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236호「아산 외암마을」의 종합정비계획(보완)을 수립하고자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민속마을의 원형보존을 위한 보존·관리 원칙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립, 민속마을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존·정비의 기준으로 삼고자 '아산 외암마을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한 바 있음(2013년)

○ 생활불편 해소방안, 나대지 내 건물신축, 건물별 가옥정비계획 등 시대적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한 '아산 외암마을 종합정비계획(보완)의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임.

※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른 종합정비계획 수립

제20조(문화재별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①법 제34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하도록 지정된 관리단체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문화재별 종합정비계획(이하 이 조에서"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정비계획은 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비계획의 목적과 범위에 관한 사항
2.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에 관한 사항
3. 문화재에 관한 고증 및 학술조사에 관한 사항
4. 문화재의 보수·복원 등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문화재의 관리·운영 인력 및 투자 재원(財源)의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재의 정비에 필요한 사항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아산시장

(2) 주요내용

○ 주민요구사항 및 기존계획 문제점

○ 종합정비계획 기존대비 보완내용

○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 결정에 따른 생활불편 해소방안 마련

- 개별가옥 정비기준 마련

○ 나대지 가옥 신축 방안 마련

- 개별 나대지 내 가옥 신축(복원) 검토기준 마련(실거주, 문화재위원회심의, 원형고증, 소유자부담, 경관조화 원칙)

○ 주민자치규약 마련 및 저잣거리 활성화 등

라. 검토의견

○ 관계전문가 자문 및 마을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013년 기 수립된 '아산 외암마을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보완한 것임

○ 세부시행사항은 문화재청의 설계검토 및 현상변경허가 등을 통하여 재검토 하므로 동 계획을 시행함에 있어 문화재의 진정성, 역사성을 저해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보류

- 관계전문가 의견수렴 보완 후 재심의

보 고 사 항

안건번호 민속 2018-04-11∼14

11∼14. 서천 이하복 고택 주변 축사 증축 등

가. 보고사항

충남 서천군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97호 「서천 이하복 고택」 주변 축사 증축 등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허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나. 처리내용

<table>
<tr><th>문화재</th><th>소재지</th><th>신청인</th><th>사업내용</th><th>처리
결과</th><th>처리
일자</th></tr>
<tr><td>서천
이하복
고택
(국민
제197호)</td><td>서천군
기산면
신막로
57번길 72</td><td>○ ○ ○</td><td>
□ 서천 이하복 고택 주변 축사 증축
○ 위치 : 충남 서천군 기산면 신산리 181,182,184,185
○ 허용기준 : 2구역(평지붕8m, 경사지붕 11m)
○ 이격거리 : 300m
○ 신청내용 : 축사 증축
단위 : 면적 ㎡/ 높이 m
○구조 : 파이프구조
<table>
<tr><th></th><th>기존</th><th>증축</th><th>철거</th><th>합계</th><th>높이</th></tr>
<tr><td>A</td><td>384.80</td><td>171.84</td><td></td><td>556.64</td><td>4.06</td></tr>
<tr><td>B</td><td>171.50</td><td>64.04</td><td></td><td>235.54</td><td>3.22</td></tr>
<tr><td>C</td><td>551.70</td><td>59.66</td><td>36.9</td><td>574.46</td><td>7.18</td></tr>
<tr><td>D</td><td></td><td>263.57</td><td></td><td>263.57</td><td>5.02</td></tr>
<tr><td>계</td><td>1,108</td><td>559.11</td><td>36.9</td><td>1,630.21</td><td></td></tr>
</table>
○벽 : 철재파이프, 지붕 : 칼라시트
</td><td>허가</td><td>‘18.7.13</td></tr>
<tr><td>남원
몽심재
고택
(국민
제149호)</td><td>남원시
수지면
내호곡2길
19</td><td>○ ○ ○</td><td>
□ 남원 몽심재 고택 주변 축사 증축
○ 위치 : 전북 남원시 수지면 호곡리 1331-5 외 3필지
○ 허용기준 : 4구역(조례에 따름)
○ 이격거리 : 450m
○ 신청내용 : 축사 증축
<table>
<tr><th></th><th>기존</th><th>변경후</th></tr>
<tr><td rowspan="2">기존</td><td>1,040㎡</td><td rowspan="2">1,280㎡</td></tr>
<tr><td>240㎡</td></tr>
<tr><td>양성화</td><td></td><td>24㎡</td></tr>
<tr><td>합계</td><td>1,280㎡</td><td>1,304㎡</td></tr>
</table>
○구조 : 철골조
</td><td>허가</td><td>‘18.7.13</td></tr>
</table>

문화재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 결과	처리 일자
아산 용궁댁 (국민 제194호)	충남 아산시 도고면 도고산로 587번길 73-21	아산시장	□ **아산 용궁댁 주변 시전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변경** ○ 위치 : 충남 아산시 도고면 시전리 484 전 일원 ○ 허용기준 : 1, 2, 3구역 ○ 신청내용 : 시전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변경신청 - 당초 • 도고문화광장 : 광장 2,623㎡(주차장, 이동식화장실 1개소 등 설치) • 문화올레길 : 황토포장 B=1.5m, L=153m, T=25cm • 마을도로 확장정비 : 콘크리트포장 L=625m, B=4~6m, T=20cm • 기간 : '17.8.17~'18.8.16 - 변경 • 주차장 내 정자 설치(면적 : 32.7㎡) • 태양광 가로등 설치 • 등산로 조성(W=1.2m, L=640m)	허가	'18.7.13
남양주 궁집 (국민 제130호)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443-2	○○○	□ **남양주 궁집 주변 옹벽 설치** ○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443-2 ○ 허용기준 : 1구역(개별심의) ※ 원지형보존, 신축불가 ○ 신청내용 : 옹벽설치 - 농경지 토사유실 방지를 위한 옹벽설치 - 길이:53.4m, 높이 : 0.5m ~ 1.9m	허가	'18.7.12

다. 의결사항

○ 원안접수